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79억원 확정

정읍시가 고물가와 기상 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1만 4439명으로 최종 확정하고, 총 379억원의 국비를 오는 10일 이전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167가지 준수사항을 충족해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이후 접수된 내역을 바탕으로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 요건, 소농 직불금 기준 등에 대한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꼼꼼히 점검해 최종 대상자를 선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내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3974명 모집

고창군이 오는 15일까지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97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233명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2883명 △여러활동형 800명 △공동체사업단 148명 △취업지원형 43명이다.

신청장소는 수행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고창군노인복지관,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총 5개소이며, 선발된 어르신은 각 수행기관에서 진행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유형에 따라 참여 자격과 내용이 다른 만큼 신청 홈페이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각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활기찬 일상이 곧 지역의 힘이 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암치석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국내 업체 4개사 1000억원 들여 2033년까지 관광숙박·휴양·문화시설 등조성

고창군이 성송면 암치 석산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4개 기업과 함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국내 관광개발 기업 4개사(社)와 ‘성송면 암치 석산 소규모관광단지 조성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산업 유휴공간을 관광·문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추진된다. 그동안 관광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와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약 5만~30만㎡의 비교적



작은 면적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완화됐다.

더불어 관광단지 지정 권한이 광역에서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으로 이관되면서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지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시설 기준 또한 기존 3종 이상에서 2종 시설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역 규모와 탄력성을 고려한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고창 성송면 사업은 새 제도를 활용해 ‘폐석산’을 소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국내 첫 번째 시도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재개발이나 공원 조성이 아니라, 산업 유휴지를 감성·체험·교육·문화가 결합된 ‘관광 목적지(Destination)’로 전환하는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이 예상된다.

성송면 폐석산은 채석 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웅장한 암반 절벽과 넓은 개방형 지형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자연경관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공간적 매력을 지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장관상’ 수상

도내 지자체 중 유일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 정읍시가 내놓은 해법이 대한민국 혁신의 표준으로 떠올랐다. 정읍시는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주치의로 채용하는 파격적인 시도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대회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역 주치의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성과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공유하는 대회다. 올해는 △참여·



소통 혁신 △민원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분야에 총 513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41개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장으

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배치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채용된 시니어 의사는 단순한 진료 업무를 넘어, 찾아오는 맞춤형 지역 주치의로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농촌진흥청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정읍시가 전국 농업 행정의 우수성을 겨루는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도내 농촌진흥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시상식은 지난 4일 농촌진흥청 연찬회에서 열렸다. 이날 정읍시농업기술

센터는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특히 이번 최우수상은 각 도(道)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각각 1개소씩만 선정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획득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를 심사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농촌진흥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집행 △민·관 협업체계 구축 △농촌 융복합 상품화 △안전 재해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노력 △청년 농업인 육성 △직업 역량 개발 △농업과 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시스템 활용 △스마트 농업 확산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홍보 활동 등이었다.

시는 그동안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춘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에 주력해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생물 산업 메카 굳혔다

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선정됐으며, 전체 지정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규모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서 정읍을 포함한 전북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정읍시가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미생물 분야의 기반 역량이 국가 차원의 사업과 연계돼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자치도 미생물 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정읍을 비롯해 전주, 익산, 남원, 임실, 순창 등 도내 6개 시·군에 걸쳐 총 409만 5293㎡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

운데 정읍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에 해당하는 173만 1804㎡를 확보하며 미생물 산업의 중심축임을 증명했다.

정읍시의 육성지구에는 신정동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향후 확장될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포함됐다. 이곳은 이미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기업들과 생산 및 실증을 위한 기반 시설이 집적화된 곳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육성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읍시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구역 내에서는 △국가 전략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 가점 적용 △지자체 소유 부지·시설에 대한 수익계약 허용 등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인)는 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황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축산지원과 스마트팜을 연계한 타당성 조사와 실증계획 마련 등을 강조했다. 서항경 의원은 정읍형 복지택시와 관련해 운행기록의 전산화 및 생활목적지 중심의 운영 등 질적 개선방향을 제안했으며, 김석환 의원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안전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임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임시예망점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송기순·이상길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고경윤·최재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6건을 가결하고 제3차 본회의를 종료했다.

부안군, 읍·면 지사협 위원 역량강화 교육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 위원장 권익현·김현규)는 지난 4일 오후 3시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안군과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했으며,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신세계 효병원 의무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정신건강 이해와 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우울증·치매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 방법을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곁에서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